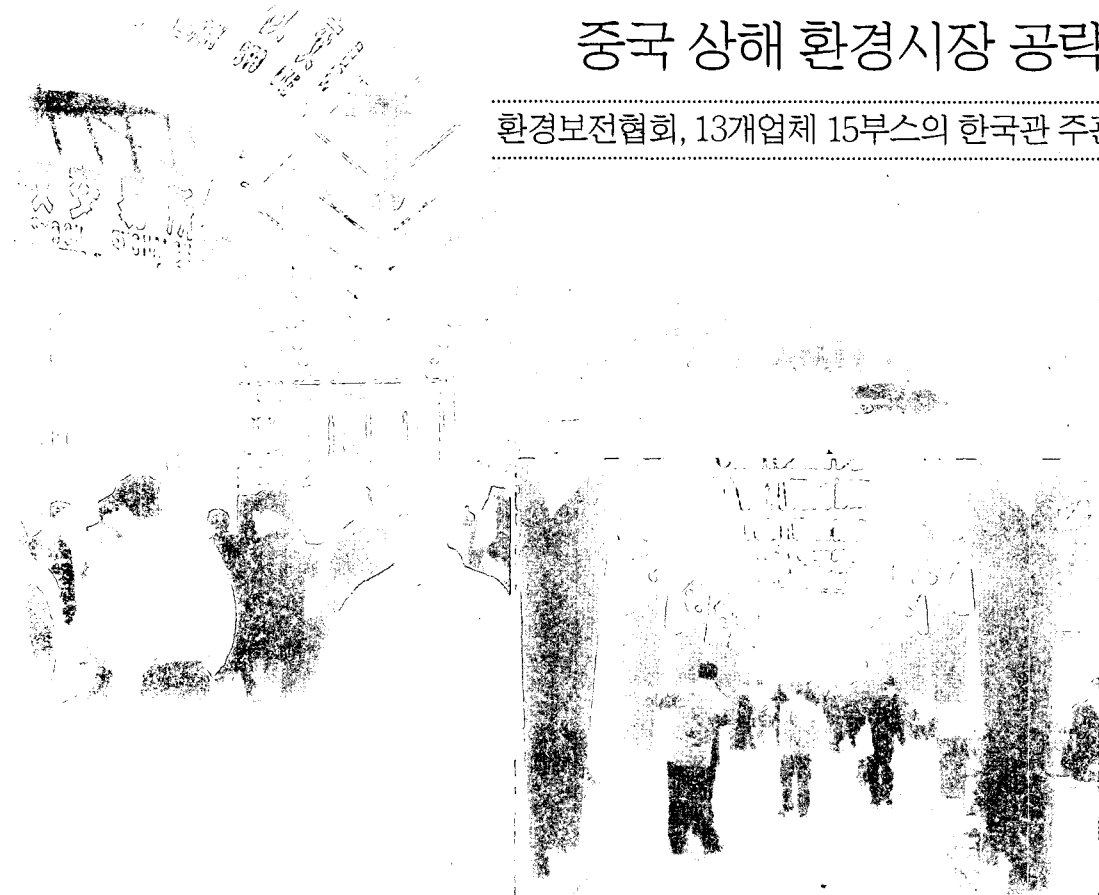


중국 상해 환경시장 공략,

환경보전협회, 13개업체 15부스의 한국관 주관



중국 공업시장의 교두보가 될 대형 공업전시회가 지난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상해 신국제전람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상해국제공업박람회(SIF2003)』는 상해시 정부(CCPIT)의 대대적인 후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IT와 환경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 환경기업들에게 호기를 제공할 전망이다. 국가급 초대형 박람회라는 명칭에 걸맞게 상해국제공업박람회의 전시면적은 총 6만2천5백㎡, 이는 국내 코엑스 태평양홀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다. 전시장은 총 5홀로 구성되어 1홀은 IT와 인터넷, 2홀은 전자, 3홀은 환경과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4홀은 전기설비와 자동화설비, 5홀은 자동차, 공업부품 등 과학기술 창조관으로 전시되었다.

주요 참가국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으로 총 18개국에서 1,131여업체가 참여하였다.

환경보전협회는 환경부,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한국관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가우디환경, 경기특장개발, 성광엔비텍, 월드브리지산업, 제4기한국, 제이슨에스엠 등 총 13개 업체(한국 홍보관 포함 15부스)가



참가하여 자사의 환경기술 및 제품 등을 홍보하였다. 환경보전협회는 환경부의 환경정책 및 국내 환경시장 현황 및 기술,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국제환경기술전시회 등을 소개하여 관람객 및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환경보전협회는 상해시 환경보호국, 상해시 환경보호산업협회, 상해시 환경보호공업협회 관계자들과 참가업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양국 환경산업·기술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환경산업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우리 환경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환경보전협회에서는 중국환경시장 확대개방에 있어 우리 환경산업체의 적극적인 판로개척과 한국환경산업의 수출마케팅 전략 강화의 목적으로 한국측 참관단 37명을 구성하여 동 전시회를 참관하였다. 한라산업개발, KS엔바이로, 태광중공업, 인천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인천시·전남도청 환경공무원 등 관련기관 및 업체로 구성된 한국측참관단은 우리나라 환경산업에 대한 홍보와 함께 중국 유망 환경전문업체의 환경설비·기술 바이어 상담, 중국의 환경기술 및 산업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송강 오수처리장을 견학하여 현 중국의 오수처리공정과 슬러지처

리 과정도 견학하였다.

중국은 최근들어 2008년 올림픽개최, WTO 가입 후 강화될 환경규제, 서부대개발 등 각종 개발시책에 따른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국의 올림픽개최도시와 주요 각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시설분야에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특히 상해시는 2005년까지 환경보호를 위해 총 109억 달러(작년 16억 7천달러)를 투입하는 등 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환경산업의 최근 성장세를 보면 환경산업 생산액이 10년 동안 25배가 증가, 작년 1천억 위안(120억 달러)을 넘어서면서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신흥산업으로 부상했다. 중국 환경산업은 70년대 발아되어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으나 정부가 90년대 중반이래 환경보호 역량을 강화함에 따라, 연간 최고 50%의 성장을 하는 등(연평균 15~20%) 전체 경제성장률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5년까지 환경산업에 7조 위안을 투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제10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환경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15%를 넘어 2005년에는 현재의 배가되는 2천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기술수준은 여전히 낮아, 선진국가 비교시 10~15년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 수출 및 투자현황

1. 수출현황

- '02년도 우리의 대중수출은 227.7억불로 29.6% 증가 '92~'02년중 대중수출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24.3%로 동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 8%대를 크게 상회
- 중국은 미, 일에 이어 우리의 3대 교역 대상국 : 6위('92) → 2위('02)

- 한국도 일, 미에 이어 중국의 3대 교역 대상국
- 한국의 對中 무역수지는 93년 흑자 전환후 10년 연속 흑자 기록
- 무역흑자 : 매년 50억불 내외(누적 : 367.6억불)
- 특히 외환위기 이후 5년간('98~'02) 흑자액이 257억불로 동 기간중 전체 무역흑자 934억불의 28.3%

〈연도별 한·중 교역현황〉

(단위:억불, %)

| 구 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
|---------|------|-----------------|------------------|-----------------|-----------------|-----------------|------------------|
| 한 국 통 계 | 총 계 | 236.9 (18.9) | 184.2 (-22.2) | 225.5 (21.1) | 312.5 (38.6) | 314.9 (0.8) | 396.2 (30%이상) |
| | 수 출 | 135.7 (19.3) | 119.4 (-12.0) | 136.8 (14.6) | 184.5 (34.9) | 181.9 (-1.4) | 227.7 (23.6) |
| | 수 입 | 101.2 (18.5) | 64.8 (-35.9) | 88.7 (36.8) | 128.0 (44.3) | 133.0 (3.9) | 168.6 (30.2) |
| | 무역수지 | 34.5 | 54.6 | 48.2 | 56.5 | 48.9 | 59.1 |

※ 한국의 對홍콩 수출(억불) : (98)92.6 → (99)90.5 → (00)107.1 → (01)94.5

○환경산업 수출 현황

'02년도 우리의 대중국 환경산업체 수출액은 2,549억원으로서 62% 차지

- 환경산업 전체 수출액은 4,079억원으로 중국 2,549억(62%), 동남아 145억(4%), 선진국 209억(5%), 기타국가 1,176억(29%) 순입

2. 투자현황

○우리나라의 2002년 중 해외직접투자 실적은 50.6억불(신고기준)로 전년(62.4억불)대비 18.9% 감소 이는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회복 지연에 따라 기업들의 해외투자 심리위축

○전체적인 해외투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성장전망이 높은 중국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여 對中國 투자는 전년대비 79.2% 증가 이는 중소기업의 對중국 투자가 크게 증가 (87.0%)한데 기인하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투

자가 37.7%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 및 개인의 투자자가 각각 43.8%, 23.8% 증가

○국가별로는 중국(17.2억불), 미국(13.7억불), 베트남(9.2억, 1.9억불)순

중국이 우리기업의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홍콩,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음

〈국가별 해외투자 동향(억불, 증가율)〉

| 구 분 | '99 | '00 | '01 | '02 |
|-----|------------|-------------|------------|-------------|
| 미 국 | 18.1(47.2) | 13.0(Δ28.2) | 18.2(40.0) | 13.7(Δ24.7) |
| 중 국 | 4.8(Δ46.7) | 9.2(91.7) | 9.6(4.3) | 17.2(79.2) |
| 베트남 | 0.7(Δ30.0) | 1.0(42.9) | 1.0(-) | 1.9(90.0) |

○환경 산업체 해외투자 현황

'02년도 환경산업체 투자액은 중국, 베트남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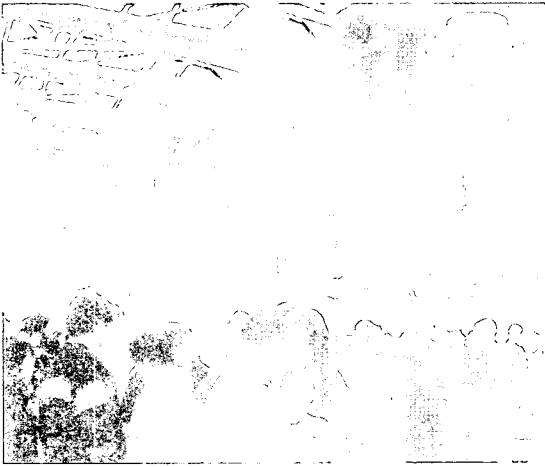
II. 진출 사업 가능 분야

우리환경산업체가 중국에 진출 가능한 유망분야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분야

중국의 일반적인 분진제거분야의 기술 및 설비는 10년전 독일의 기술도입을 바탕으로 상당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미 태국, 미얀마, 베트남 등지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탈황기술 및 탈황과 분진제거 일체화기술 및 설비면에서는 뒤떨어져 있다.

- 이산화황 탈황 기술 및 소규모 설비 : 소형플랜트 위주 바람직
- 포대식 분진제거설비의 여과포
-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배기처리와 소음제거 설비 제조
- 석탄순도강화 기술



- 활성탄 탑, 집진기, 클린 공기 공급장치, 도장 설비
- 대기오염분야 검측기기 개발관련 합자 및 합자경영

2. 수질오염분야

중국은 수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비교적 수자원이 풍부한 남서부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업오폐수의 경우 각 지역마다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지역은 기본적으로 공업용오수처리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생활오폐수 처리는 도시마다 20~60%내외의 오폐수처리율을 가지고 있어 수자원오염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 오폐수처리 시설에 들어가는 펌프, 탱크, 측정기기 등 틈새를 이용한 수질기기 및 제품의 동반진출도 중국 환경시장 진출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 내륙성 호수의 영양화 현상 방지 및 처리기술·설비
- 절수 및 오폐수 회수이용기술
- 중소형 오폐수처리설비
- 오폐수 처리중 배출되는 오니 처리기술
- 고도의 알칼 폐기물 및 응집현상 방지기술
- 오수처리장 건설(자금 협력 필요)
- 난처리 오수처리 생물 기술
- 환경복원용 미생물처리제 및 처리시스템

3. 폐기를 처리 및 재활용기술 분야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 대부분 매립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매립시 발생하는 폐수(유독성 폐수)처리 분야에 대한 기술을 공통적으로 원하고 있다. 향후 상당부분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쓰레기 처리방식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시장성은 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최근 개발분과 함께 건축물 신축이 한창이므로 기존의 건설폐기물 처리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 쓰레기 매립시 발생하는 폐수처리분야
- 도시폐기물쓰레기 처리기술
- 쓰레기 소각로 샘플공장 설립

4. 기타분야

- 환경감시·측정기기 제조(대기, 수질, 환경계측 장비 및 설비)
- 녹색상품기술, 청결상품(예 : 무오염세제)생산기술
- 생태회복·보호기술 : 폐광산 생태 재복구, 조림 등
- 자원재활용기술 및 제품

중국측에서는 한국의 환경관리 경험, 기업의 환경관리 성공 사례, 친환경평가제도 등 정책과 제도에 관심이 크며, 이해증진 및 한국의 환경관리 경험을 중국에 적용하는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보다 자세한 결과내용은 11월 20일 이후 홈페이지(<http://www.epa.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